

막장 치달는 '저거' 진실게임...이준석-원희룡 정면 충돌

李-尹 갈등 일파만파...李 녹취 공개하자 元 전체 녹음 공개 요구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선관위원장 인선 논란에 '불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자 원 전 지사가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며 정면충돌했다.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내용이 절충안 합의로 가까스로 봉합되기 무섭게 원 전 지사가 이 대표의 경선 관리에 문제 삼으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정점은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통화 발언에서 '저거'가 무엇을 지칭했는지다. 원 전 지사는 정리 대상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라 뜻으로 말했다고 맞서는 등 진실게임이 첨가경이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 신경전의 연장선에서 원 전 지사가 참전한 모양새가 연출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용이 겹잡을 수 없는 확인일로를 걷고 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지난 17일 밤 녹취록을

공개하자 18일 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6시까지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이에 이 대표는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라고 여섯 글자짜리 글을 남기며, 원 전 지사 요구를 일축했다.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회견을 통해 '원 전 지사가 확실치 않은 것을 확대 과장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 대표를 일축했다. 두 사람의 공방이 진위가 아닌 해석이 문제로 남을 경우 당장의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과 원 전 지사의 회견에서 파생된 여러 갈래의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녹취록에 포함된 '여의도연구원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이사님(원 전 지사) 오르고 계십니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행사 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 여의도연구원이 주자별 지지를 조사해 했던 말인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 자기 정치에 당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이준석 대표에 "오늘 오후 6시까지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싱크탱크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지사가 기자들에게 이 대표와 통화한 애초 목

적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경선 후보가 당대표에게 경선위원장을 성토했고 그를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은 공사를 구분 못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당내 주요인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확인된 것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 일 수 있다. 신뢰성 저하라는 점에서 두고두고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격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당 저변에 흐르는 갈등 기류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서병수 경선위원장이 이 대표를 두둔하면서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라"고 공개 발언하자, 광산도 김정재 의원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회의장 안에서는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 "누가 흔들었느냐"며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주 대권주자들 '싱크탱크' 구체화...정책대결 치열

이재명, 1800명 규모 '세바정' 출범 이낙연, 연대와 공생·여성포럼 가동 정세균, '바른대통령찾기 교수' 운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싱크탱크' 구성이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의혹 제기도 치달았던 민주당 당내 경선이 정책 경쟁 양상으로 변질될 여부도 관심사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18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정책 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세바정 2022)를 띄우며 1등 주자로서의 세력을 과시했다.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총괄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내부 정책그룹도 오랜 시간 함께 한 '성남라인'을 주축으로 운영 중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필두로 정진상 경기도 정책실장, 한춘원 출신 김재용 정책공

약수석이 참여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5월 일찌감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을 출범시키고 대표 정책인 신복지 구상, 중산층 경제론, 토지공개념 3법 등을 연구해왔다. 대표를 맡은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함께 최윤열 전 의원,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 등을 중심으로 학계와 전문가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엔 '이낙연표' 여성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여성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신복지 전국여성포럼'을 발족시켰다. 여기엔 5만 2천명의 여성 정치인과 시민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당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 출신의 홍익표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주축이 된 정책팀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정세균 후보의 경우 지난 7월 정식 지지선언을 한 '바른대통령 찾기 전국 교수 1260인 모임'이 사실상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세앗장' 정책을 설계한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분야별로 소통 중인 별도 외곽의 전문가 그룹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 중소기업

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었던 김경만 의원, 벤처기업 출신의 김병관 전 의원, 정성표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등 내부 정책팀의 규모도 작지 않다.

추미애 후보는 20~30명 규모로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 사회활동가, 현업 종사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정책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다. 추 후보는 정책 클라우드와 함께 부동산 등 경제, 국방·안보, 기후위기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토론을 수시로 하면서 '집단 지성'을 통해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교수가 소장인 정책 싱크탱크 '온국민행복정책연구원'을 운영 중이다. 박 후보는 이밖에 대학 교수와 국회 보좌진 등 7명으로 구성된 '정책 브레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 캠프에선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재원 교수가 정책 공약을 총괄한다. 대표 공약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선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외곽의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종인 전 위원장 1년만에 5·18 묘지 찾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지난해 8월19일 5·18 묘지에서 무릎 사죄를 한 뒤 1년만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 1년 만에 다시 찾은 5·18묘지에서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정

운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유족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와 간담회는 5·18유족회 김영훈 회장과 양관석 부회장, 박원욱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정신 계승'을 포함하고,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동서회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힘썼다. 특히 5·18단체의 18년째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보수정당으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공식초청을 받아 정운천 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이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참석한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

"원칙·공정으로 정권 재창출 이뤄낼 것"

취임 1년 김승남 민주 도당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18일 "총선 직후 다짐했던 겸손과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원칙과 공정으로 도당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지역구로 둔 김 위원장은 이날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의 뿌리이자 핵심 텃밭인 전남의 50만 당원이 앞장 선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현안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코로나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과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지역정치권과 힘을 모아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및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올해 사상 최대인 8조원에 가까운 전남의 국비예산 확보 ▲4·7재·보선에서의 전국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3곳에서 치러진 재·보선 승리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장흥·강진·해남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과 군내·고군·지산면 등 진도군 4개 읍·면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고, 당의 정체성 확립과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해 선출직 및 핵심당원 교육연수 강화, 지역위원회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에 정진석 의원 내정

상임위원장 후보자 7명 발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과 7명의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및 국회부의장으로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다.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재이,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국토교통위원

에 이현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 입후보해 별도의 경선 없이 선출됐다. 이들 후보자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8월 2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단,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관례에 따라 1년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모던 슬라브옥상 깔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깔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깔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